

시민행복체감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명	무탄소 미래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방안
1. 개요(제안배경)	
○ 그동안 중국발 황사 먼지와 도시 인구 집중화에 따른 무분별한 화석에너지 (자동차, 냉·난방, 전력에너지 등)의 남용 등 연중 지속되는 미세먼지와 교통 체증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등 도시 생활이 스트레스적으로 나날이 고통스럽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등 도시교통 악화로 점점 불행해지는 미래가 심각한 실정 ○ 이에, 서울시에서 늦었지만 선제적으로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책화 실행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더 많은 새로운 시민 제언을 모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나 홀로 자동차 이용자를 물리적, 정책적으로 강제 함으로서 탄소 미세먼지 저감 등 건강한 선진 행복 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며, ○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해야 하며,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우선 구축되어야 하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시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지하철, 버스정류소, 관공서 등)에 자전거 거치대 절대 부족 등(사진1 참조) ○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낙엽 쓰레기 및 미세먼지 등 자전거 오염 심각, 청소 등 유지관리 부재(사진2 참조) ○ 공공시설인 자전거 거치대에 주변 상가에서 방치 쓰레기, 각종 홍보 이동 현수막 등 전도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 등 산재(사진3 참조) ○ 공공시설인 자전거 거치대 관련 시설을 아무 생각없이 통합화하여 설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 설치 등 자전거 이용 장애 및 전도 안전사고 상존 등(사진4 참조) ○ 자전거 거치대에 야간 조명 부재에 따른 이용 불편 및 안전사고 상존 등(사진5 참조)	

- 공공시설인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주차 간격이 좁아서 이용 불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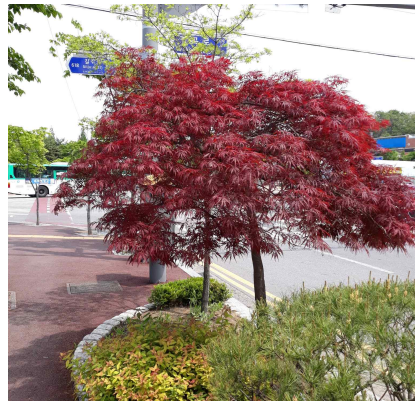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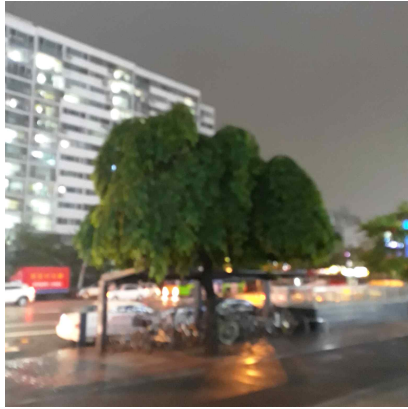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지하철, 버스정류소, 관공서 등)에 자전거 거치대 절대 부족 등(사진1 참조)



☞ [개선방안]

- 우선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별로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등 실태 전수조사 등
- 가로수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장애 유발 등 ⇒ 자전거 거치대는 영구시설임을 감안하여 기존 가로수를 이식 후 부지를 정리하고 유료광고를 하지 않고 화단이 필요한 경우 자전거 거치대 지붕 후면에 좁고 긴 화단을 조성하여 키 높이가 낮은 적합 수종(능수 뽕나무 또는 작은 수목, 꽃나무 등) 식재 등



- 자전거 거치대 사방이 Open 구조로 각종 자동차 바람 먼지 및 낙엽 등이 유입되어 자전거가 먼지로 뒤범벅이 되는 실정 ⇒ 자전거 거치대 정면 기준 3면 (후면, 옆면 2개소)을 충격에 강하고 고강도 투명 PC(Polycarbonate) 재질의 판(Pan)으로 막음 처리하고, 3개소 PC Pan 면을 유료광고(有料廣告) 지면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창출 자전거 거치대 유지관리비용 충당 등
- 자전거 거치대 2층 구조화 등

○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낙엽 쓰레기 및 미세먼지 등 자전거 오염 심각, 청소 등 유지관리 부재(사진2 참조)



자전거 거치대 청소 부재에 따른 낙엽, 먼지 등
쓰레기 방지 및 자전거 안장 먼지 오염 등

☞ [개선방안]

- 우선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별로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등 실태 전수조사 등
- 항시 자전거가 주차되어 청소에 불편함을 고려하여 각 지방정부(시·도, 시·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압분무기 탑재 차량을 이용 주기적(주 1회 이상 등)으로 주차에 자전거 거치대 바닥, 지붕, 측면, 자전거(안장 등), 거치대 주변 등 주차에 물 청소 실행 등

- 공공시설인 자전거 거치대에 주변 상가에서 방치 쓰레기, 각종 홍보 이동 현수막 등 전도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 등 산재(사진3 참조)



(제빵 상자 및 현수막 플라스틱 물통 받침대 및 이동식 현수막 등)

☞ [개선방안]

- 우선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별로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등 실태 전수조사 등
-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주변에 적치물 등 강력한 불법 단속 강화 등

- 공공시설인 자전거 거치대 관련 시설을 아무 생각없이 통합화하여 설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 설치 등 자전거 이용 장애 및 안전사고 상존 등(사진4 참조)



- 자전거 거치대에 야간 조명 부재에 따른 이용 불편 및 안전사고 상존 등(사진5 참조)



☞ [개선방안]

- 우선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별로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등 실태 전수조사 등
-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별로 자전거 거치대 지붕 천정 전면 모서리(또는 후면 모서리)에 주변 가로등과 연계하여 야간에 점등되도록 LED 조명등 설치 등

○ 공공시설인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주차 간격이 좁아서 이용 불편 등



☞ [개선방안]

- 우선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별로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등 실태 전수조사 등
-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자전거 주차 간격이 좁아 핸들이 서로 엉키는 등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화 간격을 제정하여 설치 제안
- 전기모터 공기 압축기를 설치하여 자전거 공기주입 및 자전거 안장·차대 등 먼지를 털 수 있도록 시스템 Up Grade 개선 등

4. 기대효과

-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방지 등
- 자동차 통행여건 개선에 따른 국가(기업 등 경제활동) 경쟁력 제고
- 도시 교통 이용 스트레스 없는 행복도시 창출 등

※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 등 서울시에 건설적인 건의 사안은 답변으로 종결 처리하는 행정 행위를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산하기관 사안의 경우 이첩하여 그대로 답변으로 종결 처리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 가지 제안이 혼재된 경우 사안별로 실무 적용에 유효한지 각각을 검토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보완 의견을 2차로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와 의견의 소중함의 인식이 절실합니다.

다음 쪽 계속

[언론보도]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 본격 개막



구충
모
문
화
전
문
기
자
|
기
사
입
력
201
8/04
/ 09
[10:
02]

▲ (사진제공:서울시 브레이크뉴스 © 구충모 문화전문기자) 서울시는 종로~청계천 도심을 잇는 1단계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브레이크뉴스=구충모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파리나 시카고 뉴욕과 같은 수준의 자전거전용 도로망을 목표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의 서울시 '자전거전용도로 시대'의 개막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4월 8일 개통한 종로자전거 전용도로에 이어 5월에는 청계천변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들어가는 서울시는 제1단계 종로 - 청계천변 - 종로 도심간 환상형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

이어서 한양도성 - 여의도 - 강남을 잇는 73 km 2단계 3단계 자전거전용도로망을 연내에 밑그림을 완성하여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시 브레이크뉴스 ©구충모 문화전문기자)

서울시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회원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61%가 전용도로의 안정적인 확보를 꼽고 있다고 밝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의 과속 또는 불법주정차와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부족 등을 해소하고 자전거가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구충모 문화전문기자) 서울시 자전거전용도로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행사 2018년 4월 8일(일) 차없는 종로거리를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종로와 청계천변에 이어 한양도성과 여의도 ~ 강남을 잇는 2단계 3단계 계획이 2018년내에 발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대중교통으로 대중화 될 예정이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 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출처: 중앙일보]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 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내달엔 청계천에 자전거전용도로

서울시가 8일 종로1가부터 5가까지 2.6km 구간을 잇는 자전거전용차로를 개통했다. 자전거 이용 불편을 해소해 서울을 자전거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1단계 계획이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폭 1~1.5m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4만원, 자가용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앞서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 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종로의 차량 최대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내렸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또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도색해 눈에 잘 보이도록 했고 안내 입간판도 설치했다.

야간 이용자들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2.6km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병도 설치했다.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사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시선 유도봉도 10여 곳에 설치한다.

시는 오는 5월 청계천 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올해 안에 종로~청계천~종로 간 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계7가부터 청계광장을 잇는 청계천 변 북측도로에 설치된 주말 자전거우선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변경하는 안을 두고 주변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한양도성과 여의도, 강남을 잇는 약 73km의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을 대체해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